

[창비 고등 문학] III-1 고대 ~ 고려 시대의 문학

[2] 제망매가 모의 평가 1회

반	번호

이름	
----	--

【1-5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生死路隱	생사(生死) 길흔
此矣有阿米次盼伊遣	이 이사매 머뭇그리고,
吾隱去內如辭叱都	㉠나 가 다 말스도
毛如云遣去內尼叱古	몹다 니르고 가 닛고.
於內秋察早隱風未	㉡어느 이른 매
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	이 더 러덜 님 .
一等隱枝良出古	가지라 나고
去奴隱處毛冬乎丁	가는 곧 모 룬더.
阿也彌陀刹良逢乎吾	아야 미타찰(彌陀刹)아 맞보올 ㉢나
道修良待是古如	도(道) 닷가 기드리고다.

- 월명사, ‘제망매가’

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진 10구체 향가이다.
- ② 표현면에서 비유법과 상징성이 두드러진다.
- ③ 우리말로 정리할 때 한자식 어순을 따른다.
- ④ 시조의 종장에 영향을 준 감탄사가 쓰였다.
- ⑤ 3단 구성이 시조의 3장체에 영향을 주었다.

2 위 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변화를 가장 적절히 파악한 것은?

	1~4구	→	5~8구	→	9~10구
①	간절함	→	허무함	→	이별의 슬픔
②	희망적	→	의지적	→	종교적 승화
③	서운함	→	절망적	→	의지적 태도
④	안타까움	→	허무함	→	의지적 태도
⑤	안타까움	→	희망적	→	이별의 슬픔

3 ㉠과 ㉢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은 시적 대상, ㉢은 화자이다.
- ② ㉠은 절대자, ㉢은 작가 자신이다.
- ③ ㉠과 ㉢ 모두 화자이자 작가 자신이다.
- ④ ㉠은 부정적 대상, ㉢은 긍정적 대상이다.
- ⑤ ㉠은 이상적 자아, ㉢은 현실적 자아이다.

4 ㉡의 비유적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시적 대상 이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.
- ② 젊은 나이에 죽은 시적 대상의 덧없는 삶을 의미하는군.
- ③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시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군.
- ④ 가을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묘사한 내용이야.
- ⑤ 시적 대상은 가을까지 자신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랐구나.

5 다음 중, 위 글의 1~8구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. /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. / 불러도 대답이 없다. /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.
- 김광균, ‘은수저’
- ② 꽃이 지기로소니 / 바람을 탓하라 // 주렴 밖에 성긴 별이 / 하나 둘 스러지고 // 귀촉도 울음 뒤에 / 머언 산이 다가서다.
- 조지훈, ‘낙화’
-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/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, /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/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!
- 정지용, ‘유리창 1’
- ④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한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,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. /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.
- 윤동주, ‘눈 오는 지도’
- ⑤ 관이 내렸다. /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. / 주여 / 용납하옵소서. /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/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/ 좌르르 하직했다.
- 박목월, ‘하관’